

# 미디어교육모형에 기초한 기독교대학 글쓰기교육모형 개발을 위한 탐색적 연구

## An Exploratory Study on Development of a Writing Education Model for Christian Universities Based on Media Education Models

이 란  
서울신학대학교

Ran Lee(iran370@stu.ac.kr)

### 요약

본 연구는 Hobbs의 미디어교육 모형과 Vanhoozer의 미디어텍스트 분석모형에 기초하여 기독교대학 글쓰기 교육모형을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가 개발한 모형은 기독교 세계관 수립, 접근, 분석과 평가, 창작, 성찰, 사회적 실천의 6 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독교대학의 교양과목인 “독서와 글쓰기” 과목에 적합하도록 개발되었다. 개발된 모형은 소리, 이미지, 글자 등의 복합텍스트의 비판적 ‘수용’을 토대로 대안적 ‘창작’을 주요 활동으로 하는 미디어텍스트 글쓰기 교육에 적합한 모형으로 기독교대학이 추구하는 교육 목적인 지성, 덕성, 영성이 조화된 인재형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구안되었다. 이 모형은 새 시대에 맞도록 학생 친화적이면서도 융합적인 텍스트 쓰기를 지향하고 있으며 대학에서 강조되어야 할 다양한 유형의 문자 글쓰기 역량 역시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중심어 : | 미디어 교육 모형 | 글쓰기 교육 모형 개발 | 기독교대학 글쓰기교육 | 탐색적 연구 |

### Abstract

This study tried to suggest the development of a writing education model for Christian Universities based on both Hobbs' media education model and Vanhoozer's media text analysis model. This model consists of 6 steps- Christian worldview establishment, access, analysis and evaluation, creation, reflection and social action. This was developed in order to be applied for the class “reading and writing” of liberal arts. Also, this is an appropriate model for media text writing education aiming at an alternative creation activity through a critical comprehension of the complex texts consisting of sounds, images, letters and so on. Furthermore, this is designed to train the capable persons having intelligence, character, and spirituality balanced, whom the education of Christian universities aims at. Finally, this model pursues the student-friendly and amalgamative text writing appropriate for a new era and has an advantage to raise the power of various forms of letter writing which all the universities should stress as well.

■ keyword : | Media Education Model | Writing Education Model Development | Writing Education of Christian Universities | Exploratory Study |

## I. 서론

대학에서 글쓰기 교육의 목적은 교양 있는 지식인으로서의 삶을 위한 적절한 의사소통 능력을 형성하고, 창의적이고 논리적인 사유능력을 함양하는 데 있다[1]. 즉, 사고능력의 형성과 표현능력의 향상이 글쓰기 교육의 목표이다. 글쓰기 교육은 모든 학문의 기초 능력을 신장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를 통해 형성된 학생 글쓰기 역량은 대학 인재 의사소통 역량 중 핵심 역량에 해당된다[2].

그러나 이처럼 인재가 갖추어야 할 의사소통 능력은 그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환경과 무관할 수 없다. 오늘날 디지털 매체 환경의 급속한 발전으로 말미암아 미디어 리터러시가 대학 글쓰기 교육의 중요한 분야로 자리 잡고 있는 현실이다[3].

기본적으로 리터러시는 텍스트에 대한 기본적 읽기, 쓰기와 아울러 발견, 이해, 해석, 창조, 소통 그리고 다른 텍스트와 융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 포괄하는 능력이다[4]. 그러나 최근 환경적 변화에 따른 언어관의 진화에 따라 이 '리터러시'는 다각적 커뮤니케이션 능력으로 재정의 되었다[5]. '다각적'이라 함은 음악, 시각 자료, 디자인, 영상, 문자 등의 미디어 언어 간에 경계가 희미해지고 복합 형태의 디지털로 통합되는 경향을 지칭한다. 따라서 현대의 리터러시는 디지털 사회의 문식성, 신문식성 등의 의미로 새롭게 규정되어[6], 다수가 상호 소통하는 복합양식적(multimodal) 텍스트를 지향하게 되었으며 매체를 통한 교육(through media)과 매체에 대한 교육(about media) 그리고 매체 언어의 미구성(meaning formation)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다[7].

미디어교육 연구들이 취하는 관점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미디어 환경, 미디어 활용, 미디어 리터러시이다[8]. 이 중 일반 교육가들은 '미디어 활용 교육'을 가장 보편적으로 상정하지만, 본질적으로 미디어교육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의미하며 디지털 미디어에의 접근, 활용, 변형, 생산을 총체적으로 행하는 바람직한 수요-생산자를 그 목표로 상정한다[9]. 따라서 최종 단계인 생산, 즉 창조적 쓰기는 생산자를 넘어 새 미디어

환경을 만들어내는 역할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다[10]. 이를 대안적 창작이라 이름붙일 수 있다.

이처럼 디지털 리터러시에 대한 진보된 이해는 소리, 이미지, 동영상, 글자 등의 복합양식적 문식성을 포함해야 하는 현대글쓰기 교육에 핵심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4].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본고가 고찰하는 글쓰기 교육 모형에서 '글'이란 리터러시의 대상으로서 문자뿐만 아니라 디지털 매체의 여러 유형의 텍스트들을 포함한 다양한 복합양식 텍스트를 의미한다.

김검섭은 인문교양교육의 차세대 플랫폼으로서 퍼포먼스의 활용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고[11] 주민재는 블로그 플랫폼을 활용한 피드백의 효과와 책임감 제고의 효과를 제안하고 있으며[12] 김윤선의 연구는 대학 글쓰기에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활용 문제를 고찰하였다[13]. 이외에도 영화매체를 활용한 창의적 글쓰기 학습 모형 개발[1][3], 영상을 이용한 창의적 글쓰기 수업 사례 연구[14] 광고 매체를 이용한 창의적 글쓰기 전략의 사고 모형 개발 등의 연구도 있다[15].

그러나 이상 대부분의 연구는 구미디어(구매체)를 글쓰기교육을 위한 준비 자료나 피드백 자료로 활용한 것으로서 복합양식적 문식성과는 무관한 글쓰기지도 연구이다. 다시 말해, 매체를 통한 교육(through media)에 그칠 뿐이지 매체에 대한(about media) 교육, 혹은 매체 의미 구성(media meaning formation)을 포괄적으로 지향하는 교육이 아니다. 상술하면, 매체를 '활용'하여 문자 글쓰기 지도는 하였지만, 복합양식적 텍스트 자체를 분석적으로 읽어내고, 나아가 그 복합구성체를 재생산해낼 수 있는 역량까지 이르게 하지 못 했다. 이러한 글쓰기 교육은 현대 사회가 지향하는 복합양식적 문식성을 지향하는 글쓰기교육 개념에 적합하지 않다.

개념적으로 종합하면, 미디어 교육은 매체에 대한 교육, 매체를 통한 교육, 매체 의미 구성을 포괄하는 교육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념을 정립한 미디어 교육의 선구자, 영국의 Buckingham은 미디어 교육의 핵심은 '수용'이 아니라 '창작'에 있다고 강조하였다. 즉, '창작'을 통하여 미디어 텍스트의 생산, 유통, 수용, 재창조 등의 과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미디어텍스트의 교육적 활용은 미디어에의 접근, 사

용법 이해, 기존 텍스트의 분석 및 평가, 이를 토대로 한 대안적 텍스트 창조를 통해 완성된다고 보았다. 여기서 미디어 사용자는 수요자이면서 동시에 생산자이다. 오늘날 미디어의 생산자와 수요자의 경계는 점점 허물어져가고 있다. 이 점이 미디어 텍스트의 생산과 수요가 수업 중 함께 이루어져야 할 이유가 된다.

보다 진보된 뉴미디어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은 이 같은 생산(창작) 중심 미디어 교육의 결과물로서 학습자들이 획득하는 매체에 대한 지식과 기술, 또 이를 수반하는 읽기와 쓰기를 필수적으로 포함하는 교육에서 비롯되며,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비로소 복합양식적 정보를 비판적으로 읽고(reading) 이를 개선하여 창의적으로 재생산(writing)할 수 있게 된다[15][16].

또한 뉴미디어가 가진 장점인, 용이한 상호소통의 플랫폼이 문자 글쓰기의 주요 장면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보다 강화되어야 할 문자 글쓰기의 훈련 역시 노릴 수 있다. 현대 미디어교육의 중점 사항은 '비판적 읽기'를 통한 "창작"에 놓여 있기 때문에[9] 미디어교육 모형은 독서와 글쓰기를 접목하고 있는 현대 대학 글쓰기 교육의 실정을 디지털 환경적 맥락에 맞게 그대로 대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물론 대학에서 다루어야 할 글쓰기 유형은 창의적 글쓰기, 설명적 글쓰기, 논증적 글쓰기 등 다양하지만 상호소통의 플랫폼은 어떤 유형의 글쓰기든 교수자의 안내에 따라 업로드와 피드백을 가능하게 한다.

즉, 21세기 대학 글쓰기 교육은 현대 사회문화적 환경 맥락에 발맞추어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관점에서 수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문자로서의 글뿐 아니라 다양한 전달양식을 포괄하는 복합양식적 구성체를 비판적으로 읽고 생산해내는 능력을 갖추도록 구성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이는 기독교 대학의 글쓰기 교육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다만, 복합양식적 구성체를 글쓰기 영역으로 가져오는 것에 있어 자료, 내용적 측면에서는 동일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관점, 비판적 해석과 생산의 저변에 있는 세계관 측면에서는 다른 이념적 토대에 설립된 대학들과 구별되는 점이 있다. 문화 속 복합양식 텍스트를 읽어내어 분석하는 관점과, 해석 및 재생산하는 관점이

기독교 세계관에 입각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기독교 대학이라고 해도 교육목표가 모두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예로 서울신학대학교의 교육목적을 살펴보면, 성결한 삶을 지향하는 신앙교육, 정의와 평화를 구현하는 나눔교육, 유연성과 수월성을 지향하는 전문교육, 비전과 열정을 담은 글로벌 교육 등이다[17]. 이에 따른 핵심 역량은 영성적 도덕역량(성결한 기독교인), 소통과 공감 역량(실천적 봉사인), 창의융합 역량(융합적 전문인), 글로벌 역량(창조적 세계인)이다[17]. 영성적 도덕역량을 제외하고는 일반 대학 목적과 거의 일치한다. 따라서 기독교 대학의 정체성은 영성적 도덕역량, 즉 신앙과 기독교 세계관이 모든 과목의 전문성과 봉사, 창의력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그 독특성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중에서 '교양 독서와 글쓰기'라는 교양 과목은 특별히 융합형 전문인과 보다 밀접히 관련되어 있고 그 목적은 창의적인 글쓰기 능력을 함양시키고, 글쓰기 임상 실습을 통해 책임기 방법과 글쓰기 방법을 연계시키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핵심역량을 길러주려는 데에 있다[17]. 따라서 이 과목은 '읽기'를 통한 '쓰기' 능력 신장을 목적으로 하면서 이를 통해 현실의 문제해결력을 향상시켜 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독교인의 문제해결의 핵심 이념이라 할 수 있는 기독교적 세계관이 그 교육적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미국의 미디어 교육학자 Hobbs가 제안한 디지털 미디어교육모형을 기독교 문화신학자 Vanhoozer의 이해와 절충한 형태로서 '미디어 교육모형에 기초한 기독교대학 글쓰기교육 모형'을 개발하고 이를 제안하고자 한다.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현대의 디지털 시대가 요구하는 리터러시 역량을 반영하고 기독교 대학의 글쓰기 교육 목표에 적합한 글쓰기 교육 모형은 무엇인가?

## II. 미디어교육 관련 모형 검토

### 1. 홉스(R. Hobbs)의 디지털 미디어교육 모형

Hobbs의 디지털 미디어교육 모형은 구미디어를 주요 대상으로 했던 Buckingham의 창작 중심 교육모형 [9]을 상호 소통적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맞도록 개선한 모형이다. 즉, 접근(access), 분석(analysis) 및 평가(evaluation), 창작(creation)의 3 단계에 성찰(reflection)과 사회적 실천(social act) 단계를 추가한 것이다.

Hobbs는 미디어교육에 낙관적이고 개방적 견해를 가지고 있다. 학습자가 모든 유형의 매체에 능숙하게 접근, 주도적으로 분석하고 평가, 창작할 수 있을 때 사용자로서 권한을 부여받는다(empowering)는 견해를 견지한다. 이는 Buckingham이 미디어 교육을 단순히 미디어 메시지에 대한 분석에 그쳐서는 안 되며 창작을 통해서 미디어 산물의 생산과 공급, 유통과 수요에 대한 비판적이고 총체적인 수요-생산자가 되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한 견해를[9] 좀 더 발전시킨 것이다. 즉, 기존 단계 구성에 ‘성찰’과 ‘사회적 실천’ 단계를 추가해 디지털 미디어가 가진 의사소통적 기능을 강화한 모형이다. 그리고 이러한 의사소통적 ‘실천’의 결과는 다시 ‘접근’으로 피드백 되는 순환적 모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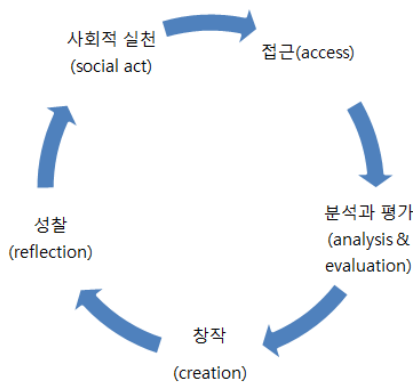


그림 1. Hobbs의 디지털 미디어 교육 모형

각 단계의 핵심 역량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첫 단계인 ‘접근’은 한 마디로 주어진 미디어를 능숙하게 다루어 정보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분석과 평가’는 그 미디어에 담긴 메시지를 이해하고 분석, 평가하는 비판적 사고 과정이다. 이것이 일반 글쓰기로 환원되면 독해와 비평에 해당되는 것이다. 세 번째 단

계는 ‘창작’인데 미디어 메시지 분석을 통해서 메시지의 질이나 관점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했다면 이제 학습자 자신이 그 대안을 제시하면서 건전한 미디어 메시지를 생산하는 것이다. 이것이 본격적인 글쓰기에 해당한다. 여기서 글쓰기란 이미지, 영상, 디자인, 소리, 문자 등을 복합적으로 엮어 하나의 미학적 메시지를 생산해내는 것으로서 이전 단계, 즉 미디어 기기 사용법을 전제로 한 ‘접근, 양질의 메시지에 대한 기준을 세우는 ‘분석과 평가’ 단계가 없다면 결코 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이 점이 ‘창작’ 단계 이전에 미디어 ‘접근’과 텍스트 ‘분석’을 다루어야 할 이유가 된다. 이제 창작이 끝났다면 ‘성찰’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자신이 창작한 텍스트를 다양한 방면에서 반성하고 고쳐 쓰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실천’ 단계는 집단 안에서 지식과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하며 활동하는 능력이다.

표 1. 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의 핵심 역량[18]

| 단계     | 핵심역량의 내용  |
|--------|---|
| 접근     | 미디어와 기술적 도구를 숙련되게 찾아내어 사용하고 타인과 관련 정보를 공유할 능력                     |
| 분석과 평가 | 메시지를 이해하고 그 효과와 결과를 인식하면서 메시지의 질, 정직성, 신뢰성, 관점 등을 분석하는 비판적 사고 능력  |
| 창작     | 목적, 수용자, 구성기술들을 인식하면서 창의성과 자기표현에 자신감을 가지고 내용을 구성, 생성해내는 능력        |
| 성찰     | 자신의 정체성과 경험, 의사소통 활동, 행위에 사회적 책임과 도덕적 원칙을 적용하는 능력                 |
| 사회적 실천 |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지식을 나누고 가정, 소속 공동체에서 문제를 해결하며 지역, 국가 수준에서 참여하여 활동할 능력 |

이 모형의 다섯 단계는 대별하여 ‘매체 수용’(접근, 분석과 평가)- ‘매체 창작’- ‘피드백’(성찰, 사회적 실천)이라는 세 단계로 개념화하여 대학 글쓰기 모형에 적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독서와 글쓰기” 교양과목에 적용할 경우 ‘매체 수용’은 독서의 역할을, ‘매체 창작’은 글쓰기의 역할을, ‘피드백’은 첨삭과 고쳐 쓰기의 역할을 실행할 수 있다. 소리, 이미지, 문자 등이 조합되어 있는 복합양식 텍스트에 먼저 접근하여 이해, 분석, 평가하고(매체 수용), 유사한 유형의 텍스트를 창작한 후 (매체 창작), 마지막으로 성찰과 실천을 통해 상호 피드

백하고 첨삭과 고쳐 쓰는 단계를 순서대로 밟아나갈 수 있다. 창작된 복합적 텍스트를 동료들과 공유하며 피드백, 첨삭하거나 어떤 대안적인 사회적 실천을 계획하고 행하는 단계이다.

표 2. 대학 글쓰기 수업에의 활용

| 단계     |                | "독서-와 글쓰기" 수업의 접목  |
|--------|----------------|--|
| 접근     | 매체 수용          | -특정 매체를 숙련되게 사용하고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br>복합양식 텍스트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그 질, 정직성, 신뢰성, 관점 등을 분석, 평가한다. |
| 분석과 평가 |                |  |
| 창작     | 매체 창작          | -목적, 수용자, 구성기술들을 인식하면서 내용을 구성, 생성한다.<br>-매체 복합구성체를 창작해낸다.                            |
| 성찰     | 피드백, 첨삭과 고쳐 쓰기 | -자신의 창작물에 사회적 책임과 도덕적 원칙을 적용한다.  |
| 사회적 실천 |                | -집단적으로 지식을 공유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피드백 활동을 한다.   |

## 2. 반후저(K. Vanhoozer)의 미디어텍스트 분석 교육 모형

Vanhoozer는 기독교 문화신학자로서 각종 매체에서 생산되는 문화텍스트 이면의 세계관 분석을 강조한다. 다양한 문화텍스트, 즉 인쇄물 포함 각종 예술작품, 다양한 미디어 메시지, 문화 트렌드까지 포함하는 문화텍스트에 있어 그 배후 세계관 분석의 중요성을 역설한다[19]. 그는 문화 텍스트 안에 담긴 다양한 세계관들이 언제나 기독교 세계관과 합치되는 것은 아니며 동시에 절대적으로 모순되지만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합치와 모순의 텍스트들을 정반합의 변증적 자세로 읽어야 한다는 ‘기독교 세계관적 분별력’ 교육을 강조한 것이다[20].

세계관은 인간이 처한 시대와 문화, 종교성, 신념 등에 기초하면서 “세상과 인생에 대한 이해와 삶의 통합적 기초”를 제공하는 토대이다[20]. 특히, Vanhoozer에 따르면 세계관은 한 문화 텍스트를 창조한 작가가 각 작품에 이식한 ‘세계를 해석하는 관점’이다[19]. 그는 선하게 창조되었던 피조물과 문화가 죄로 인해 타락했고 이제 그리스도의 회복 사역을 통해 회복되어 가는 과정 중에 있다는 기독교 세계관을 바탕으로, 다양한 텍스트

읽기를 통해 발견된 이질적 세계관을 비판적으로 읽어 분석하는 능력을 배양시킬 것을 권고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기독교대학 교육은 신본주의 교육으로서 성경과 교과의 통합교육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23]. 그러나 이것은 모든 교과의 자료를 기독교 서적으로 채우라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모든 과목에 있어 다만 기독교적 텍스트만 다룰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세계관의 텍스트를 자료로 선정하여 예방적인 분별력을 키워주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래야만 학습자에게 물고기 자체가 아닌 낚시법을 알려주는 교육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22].

Vanhoozer는 성경 해석학에 기초해 일반 텍스트 해석에 대한 견해를 전개하면서 각 매체가 발생시키는 모든 종류의 텍스트에는 하나의 적합한 해석이 존재한다고 역설한다[21]. 따라서 복합양식 텍스트 역시 의미의 근원적 창발지가 저자에게 있다고 믿고, 저자 중심적 이해가 곧 텍스트를 적합하게 이해하는 길임을 제시한다.

이때 독자가 각 텍스트의 본래적 의미를 저자 존중의 태도로 적합하게 발견하면, 이제 독자의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하여 의심의 해석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의심이란 자신의 세계관에 기초한, 텍스트에 대한 비판적 평가를 말한다. 따라서 그의 해석적 과정은 텍스트의 본래적 의미 찾기 단계와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텍스트 이면 세계관 비평 단계로 이중적 구조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21].

이 같은 Vanhoozer의 텍스트 분석 모형을 기독교대학 글쓰기교육 모형에 투영하기 위해서는 먼저 학습자의 기독교 세계관 확립이 선행적으로 요구된다. 대부분의 기독교대학의 경우 기독교인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 보편적이거나, 수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글쓰기 교육의 도입에서 기독교 세계관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교육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기독교 세계관이 학생들의 지식 체계에서 텍스트 평가의 기준으로 자리하면, 두 번째 단계로서 텍스트 자체의 의미를 능숙하게 분석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때 장르 이론, 역사 정보, 기호학, 저자 정보 등의 자원이 활용된다. 이처럼 저자의 텍스트 의미가 분석되면 이를 토대로 이면의 세계관을 비판적으로 분석해내는

것이 세 번째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이 텍스트에 대한 비판적 이해에 기초하여 대안적 실천을 수행한다. 즉, 창작이다. 이 과정은 [표 3]에 정리되어 있다.

다시 말하여 본격적인 글쓰기는 대안적 실천 단계에서 이루어진다.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글쓰기란 결국 기존의 생산된 텍스트를 비판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보다 기독교 세계관에 적합한 텍스트를 생산해내는 과정을 의미하므로 세계관 수립, 분석, 대안적 실천 모두가 대학글쓰기에 중요한 단계 과정임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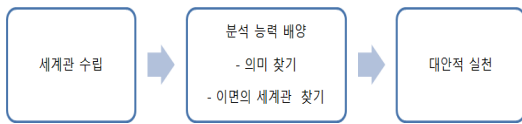


그림 2. Vanhoozer의 문화텍스트 분석 교육 모형[16]

표 3. Vanhoozer 모형의 단계별 활동 내용[16][19]

| 단계     | 내용   |
|--------|--|
| 세계관 수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념, 철학, 종교, 세계에 대한 이해, 자기 정체성 등을 이해하고 하나의 세계관을 수립.</li> <li>- 자신의 문화관, 해석적 관점, 읽기 목적 등을 정리.</li> <li>- 이후 분석적 틀의 역할을 함.</li> </ul>    |
| 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텍스트 내부의 세계 (감상과 이해)</li> <li>- 텍스트 이면의 세계 (의미 찾기)</li> <li>- 텍스트 앞의 이해와 분석 (효과와 영향력)</li> <li>- 세계관 비평 (나의 세계관에 비준 비판과 수용)</li> </ul> |
| 대안적 실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역량 있는 해석자 (문해력)</li> <li>- 분별력 있는 제안과 영향력 있는 의견 창조</li> <li>- 대안적 문화텍스트 창조</li> </ul>   |

[표 3]은 Vanhoozer는 모형의 단계별 활동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먼저 ‘세계관 수립’ 단계는 본인의 종교, 철학, 신념에 근거하여 자신의 세계관을 수립하는 단계이다. 기독교인의 경우 기독교 세계관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를 토대로 문화에 대한 관점을 정리하고, 이러한 문화 텍스트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문화텍스트 읽기의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한 다방면의 사고를 해본다.

둘째, 분석 단계는 문화 텍스트를 분석해보는 단계이다. Vanhoozer는 먼저 텍스트 내부 세계를 감상하고 난 후, 텍스트의 이면에 해당하는 의미, 곧 저자의 메시지, 주제를 찾는 방법을 제시했다. 다음으로는 텍스트 앞에 해당하는 그 텍스트의 영향력, 효과 등을 사회적

맥락 속에서 검토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세계관을 토대로 그 텍스트의 세계관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것이다. 모든 세계관이 기독교와 무조건 모순되기만 한 것은 아니므로 합치되는 점과 모순되는 점 모두를 찾아 분별한 후, 자신의 세계관으로 동화, 수용한다.

셋째, 대안적 실천이란 창작 단계이다. 세계관 수립과 분석 과정을 통해 역량 있는 해석자가 된 학습자는 이제 텍스트 생산자가 되어 사회에 바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대안적 텍스트를 생산한다. 이때 생산된 창작물이 대안적 텍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이전 단계인 분석 단계에서 기존의 텍스트를 분석하고 비판하는 과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얻어진 경험적 지식과 생산 역량이 전제되어야 한다.

표 4. 기독교대학 글쓰기 교육에의 활용

| 단계                  | “독서와 글쓰기” 수업에의 적용    |   |
|---------------------|----------------------|---|
|                     | 기독교 세계관 수립           | 기독교 세계관의 수립 이후 분석적 틀의 역할  |
| 도입                  |                      |   |
| 분석 (텍스트 수용)         | 복합텍스트의 의미 이해와 분석, 평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텍스트 내부의 세계 (감상)</li> <li>- 텍스트 이면의 세계 (의미 찾기)</li> <li>- 텍스트 앞의 이해와 분석 (효과와 영향력)</li> <li>- 세계관 비평 (기독교 세계관에 비준 세계관 비판과 수용)</li> </ul> |
| 대안적 실천 (텍스트 창작, 공유) | 복합텍스트의 창작과 감상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안적 문화 텍스트 창조 (글쓰기)</li> <li>- 분별력 있는 제안과 영향력 있는 의견 창조</li> <li>- 동료 감상과 고쳐 쓰기 활동</li> </ul>   |

위의 [표 4]는 Vanhoozer의 미디어텍스트 분석 교육 모형을 기독교대학의 “독서와 글쓰기”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도입’에서는 기독교 세계관을 수립한다. 이는 기독교 세계관을 지식적으로 교육함을 의미하며 이 지식 구조는 이후 복합텍스트 자료 분석의 틀로서 역할하게 된다. 두 번째 단계인 ‘분석’에서는 주어진 복합텍스트의 의미를 이해하고 분석하며 평가한다. 이때 평가는 세계관 비평도 포함된다. 마지막 단계인 ‘대안적 실천’은 본격적 글쓰기 단계로서 복합텍스트를 창작하고 감상하게 된다. 이 단계에는 학습자의 기독교 세계관이 반영된 대안적 창작 형태로 표현되는 것을 중요시하게 된다.

### III. 미디어교육 모형에 근거한 기독교대학 글쓰기교육 모형

앞에서 살펴본 Hobbs의 미디어교육 모형과 Vanhoozer의 미디어텍스트 분석교육 모형을 종합하면 기독교대학에서 사용할 수 있는 효과적인 글쓰기교육 모형을 제시할 수 있다. 여기서 ‘글’은 서론에서 제시하였듯이 미디어 ‘복합양식 텍스트’를 의미하며, 글쓰기교육은 21세기 환경적 맥락을 고려한 확장적 리터러시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이다.

아래의 [그림 2]는 Hobbs의 미디어교육 모형에 Vanhoozer가 강조한 ‘세계관 수립’의 단계를 추가한 것을 보여준다. 수업의 도입에서 지식적으로 세워진 기독교 세계관은 이후 텍스트분석과 텍스트창작, 양 단계에 있어 분석적 틀/framework로서 역할하게 된다. 나머지 다섯 단계는 Hobbs의 모형과 동일하다. Vanhoozer의 ‘분석’ 단계는 ‘텍스트(매체) 수용’에 해당하며 그림 2에서 ‘접근’, ‘분석’과 ‘평가’ 단계를 포함한다. 또 Vanhoozer의 ‘대안적 실천’ 단계는 ‘텍스트(매체) 창작, 공유’에 해당하며 [그림 2]에서 ‘창작’, ‘성찰’, ‘사회적 실천’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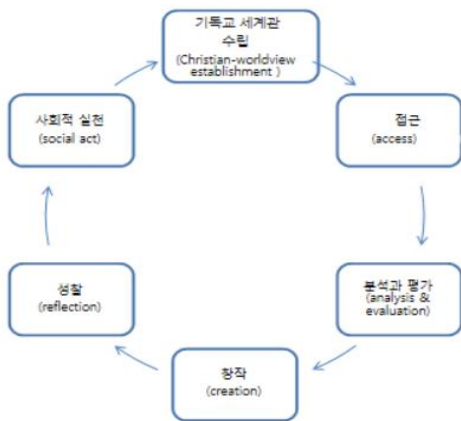


그림 2. 기독교대학 글쓰기교육 모형[16]

아래의 [표 5]는 기독교대학 글쓰기교육 모형을 기초로 각 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핵심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기준에 개발되어 있는 미디어 교육 모형의 세부내

용을 본 연구의 취지에 맞도록 수정한 것이다[11]. 이 핵심내용은 첫째, ‘기독교 세계관 수립’ 단계에서 기독교 대학이 추구하는 세계관 지식의 전수를 강조하며 둘째, ‘접근’ 단계에서는 각 차원에서 선정한 특정 미디어와 기술적 도구를 숙련되게 찾아내어 사용하고 특히 디지털 미디어의 강점인 타인과의 상호소통을 통한 정보공유를 강조하고 있다. 이 단계에서는 대학 글쓰기가 결코 축소시키지 말아야 할 문자 글쓰기 역량이 그 내용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을 보여준다.

셋째, ‘분석과 평가’ 단계에서는 Vanhoozer가 제시한 텍스트 분석 모형을 그 핵심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해당 미디어의 복합텍스트를 감상하고, 의미를 이해하며 효과를 분석하고 마지막으로 그 이면의 세계관을 비평한다.

넷째, ‘창작’ 단계에서는 이전 단계에서의 텍스트 비평 내용을 바탕으로 텍스트의 목적, 수용자, 구성기술들을 의식하여 자신의 세계관을 투영하여 창의적인 미디어 텍스트를 창작하게 된다.

다섯째, ‘성찰’ 단계는 자신의 정체성과 관점, 세계관 등을 투영하여 자신의 창작물에 사회적 책임과 도덕적 원칙을 적용하는 활동으로 구성된다. 자기 평가와 자기 침삭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실천’ 단계는 자신의 창작물에 대하여 개인, 집단적으로 지식을 공유하고 상호 피드백하면서 더 나은 대안으로 모색하는 단계이다. 일종의 동료, 교수 침삭이 이루어지며 디지털 미디어의 상호소통적 글쓰기를 통하여 문자 글쓰기 훈련이 강화된다.

표 5. 기독교대학 글쓰기교육 모형의 핵심 내용

| 단계         | 핵심 내용   |
|------------|---|
| 기독교 세계관 수립 | - 기독교 세계관을 수립.<br>- 주요 세계관들을 검토하고 이를 기독교 세계관과 비교 대<br>- 토하여 이해.   |
| 사용 (접근)    | - 미디어와 기술적 도구를 숙련되게 찾아내어 사용.<br>- 특히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타인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br>- 소통함.<br>- 문자 글쓰기를 포함한 미디어 활용  |
| 분석과 평가     | - 메시지(의미)를 찾고 감상할 능력을 배양.<br>- 그 효과와 결과를 인식하면서 메시지의 질, 정직성, 신뢰<br>- 성, 관점 등을 분석.<br>- 인지적, 감정적, 심미적, 도덕적 영역들의 기준에 맞추어<br>- 평가할 능력을 배양.<br>- 자신의 세계관과 관점을 투영하여 평가하는 비판적 사고<br>- 능력 배양. |

|        |   |
|--------|---|
| 창작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목적, 수용자, 구성기술들을 인식하면서 창의성을 가지고 자기 표현할 수 있는 능력.</li> <li>- 자신의 관점/세계관을 투영하여 미디어 메시지를 창작할 능력.</li> </ul>   |
| 성찰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신의 정체성과 관점, 세계관 등을 투영하여 자신의 창작 품에 사회적 책임과 도덕적 원칙을 적용함.</li> <li>- 창작 경험을 바탕으로 자신의 관점과 세계관을 점검하고 수정하거나 개선함.</li> </ul>                             |
| 사회적 실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인 및 집단적으로 지식을 나눔.</li> <li>- 창작물에 대한 피드백을 공유하고 대안을 모색함.</li> <li>- 디지털 미디어 활용 의사소통을 통하여 의견을 나누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함.</li> <li>- 문자 글쓰기의 적극적 활용</li> </ul> |

위의 모형은 ‘교양독서와 글쓰기’ 과목처럼 텍스트 ‘수용’을 통한 ‘창작’을 목표로 하는 대학 글쓰기 교육에 적합한 모형이며, 이때 미디어는 UCC, 사진, 음악, 회화, 웹툰, 소설, 영화, 드라마 등 대부분의 매체를 포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 대학생들의 글쓰기가 대부분 웹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활 맥락을 이해할 때, 이 모형은 가장 학생 친화적, 융합적이고도 효과적인 글쓰기 모형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리고 대학에서 특히 강조되어야 할 문자 글쓰기 역량 역시 이 모형을 통해 충족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특히 ‘사회적 실천’ 영역은 생산된 미디어 텍스트를 상호 공유하면서, 상호 소통의 플랫폼을 이용하여 얼마든지 사후 (문자) 글쓰기 지도를 전개할 수 있다. 동료 첨삭, 교수 첨삭, 전문가 첨삭 등도 모두가 용이하다. 물론 이 문자 글쓰기 교육에는 창의적 글쓰기, 설명적 글쓰기, 요약 및 비평, 학술적 글쓰기 등 교수자의 안내와 과제에 따라 다양한 글쓰기를 포함할 수 있다.

또한 이 모형을 글쓰기 교육에 적용하는 것은 기독교대학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신앙교육과 나눔, 전문 인재 양성 교육의 융합이 가능하게 한다. 학생 자신의 창작 활동 양위로 자기 세계관 점검과 텍스트 세계관 분석, 자기반성, 상호 평가라는 가치관 교육적 요소가 충분히 삽입되어 있어 학생 자신의 창작적 성취를 기독교 세계관에 의해 비판적으로 성찰하고 대안적으로 수정하기에 적합한 모형이다.

####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미디어교육 관련 두 모형- Vanhoozer의

미디어텍스트 분석모형, Hobbs의 미디어교육 모형 -에 기초하여, 디지털 리터러시를 대학생 의사소통 역량으로 포함하고 있는 글쓰기 교육모형을 개발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모형은 총 6개의 단계-기독교세계관 수립, 접근, 분석과 평가, 창작, 성찰, 사회적 실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독교대학의 교양과목인 ‘교양독서와 글쓰기’ 과목에 적합하도록 개발되었다. 이 개발된 모형은 Hobbs가 제안한 미디어 교육 모형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나 기독교 세계관 지식의 선행 교육, 문화텍스트의 비판적 수용과 비평을 포함하는 기독교 문화신학자인 Vanhoozer의 모형을 접목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기독교대학이 추구하는 교육 목적인 지성, 덕성, 영성이 조화된 인재형을 양성할 수 있도록 구안되었다.

이 모형은 학생 친화적, 학제 융합적인 글쓰기 수업을 지향하고 있으며, 다양한 매체 텍스트의 창작뿐 아니라 ‘성찰’, ‘사회적 실천’ 단계의 확장을 통해 대학에서 특히 강조되어야 할 다양한 문자 글쓰기 역량 역시 제고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또한 이 모형은 기독교대학에서 교육 목표로 하는 기독교 세계관과 전문성 교육의 융합을 지향한다. 즉, 기독교 세계관을 수립하는 것에서 시작하여, 이처럼 습득된 세계관이 이후의 5단계 활동의 창작적, 평가적 준거가 되도록 개발되었기 때문에 신앙에 근거한 디지털 리터러시가 가능하게 하였다.

이 모형을 통해 글쓰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이후 수업을 떠난 어떤 상황에서도 텍스트 수용이나 비평, 창작에 있어 수업에서 적용했던 동일한 정신으로 세상이면의 세계관을 분별하고 창작적 대안을 제시하는 인재로 살아갈 수 있다. 다만, 실제 수업 활용에 있어 글쓰기 능력 증진과 관련하여 이 모형의 효과성에 대한 학생 반응 연구는 지면상 함께 제시하지 못 했기에 추후 연구로 남긴다.

#### 참 고 문 헌

[1] 이상금, “영화매체를 활용한 창의적 글쓰기의 학



습모형,” *독어교육*, Vol.43, pp.117-143, 2008.

[2] 이근호, 광영순, 이승미, 최정순, 이광우, “미래 사회 대비 핵심역량 함양을 위한 국가 교육과정 구상,”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보고 RRC 2012-4*, 2012.

[3] 김인경, 영상매체 활용을 통한 설명하는 글쓰기 연구, *사고와 표현*, Vol.7, No.1, pp.189-206, 2014.

[4] 임지원, “참여적 글쓰기를 위한 복합양식 리터러시 기반의 매체언어 연구,” *사고와 표현*, Vol.8, No.2, pp.279-307, 2015.

[5] 이란, 현은자, “디지털 시대의 아동 미디어 관련 연구동향 분석,” *아동학회지*, Vol.35, No.4, pp.17-40, 2014.

[6] 이순영, “디지털 시대의 청소년 독자와 비판적 읽기,” *독서연구*, Vol.24, pp.87-109, 2010.

[7] 윤여탁, 최미숙, 김정자, 정현선, *매체언어와 국어 교육*,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08.

[8] J. Meyrowitz, “Multiple Media Literacies,” *Journal of Communication*, Vol.48, No.1, pp.96-108, 1998.

[9] D. Buckingham, *Media Education*, Polity, 2003.

[10] 김양은, *디지털 시대의 미디어 리터러시*, 커뮤니케이션북스, 2009.

[11] 김경섭, “피포먼스, 인문교양교육의 차세대 플랫폼,” *교양교육연구*, Vol.6, No.4, pp.103-137, 2012.

[12] 주민재,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대학 글쓰기 교육 방안-블로그를 활용한 교수자 및 동료 피드백 효과 제고와 필자로서의 책임감 형성 가능성을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Vol.8, No.4, pp.137-165, 2014.

[13] 김윤선, “스마트 시대, 대학 글쓰기 교육의 변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한 쓰기 교육을 중심으로,” *교양교육연구*, Vol.6, No.3, pp.249-279, 2012.

[14] 송선령, “창의적 글쓰기 수업 연구,” *이화어문논집*, Vol.30, pp.29-54, 2012.

[15] 임지원, “창의적인 글쓰기 전략을 위한 사고 모형으로서 인지적 의미 분석 모델의 제안,” *비평문학*, Vol.49, pp.293-331, 2013.

[16] 이란, 현은자, “한국형 미디어교육 모형의 개발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17, No.3, pp.462-473, 2017.

[17] [http://www.stu.ac.kr/CmsHome/stu03\\_01\\_10.eznic](http://www.stu.ac.kr/CmsHome/stu03_01_10.eznic)

[18] R. Hobbs, *Digital and Media Literacy: A Plan of Action*, Washington D.C.: The Aspen Institute, 2010.

[19] K. Vanhoozer, *Everyday Theology*, 윤석인 역, 문화신학, 서울: 부흥과 개혁사, 2007.

[20] 신국원, *니고데모의 안경*, IVP, 2005.

[21] K. Vanhoozer, *Is There a Meaning in this Text?*, Michigan: Zondervan, 1998.

[22] 이란,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한 문학 읽기 교육 모형 개발과 모형 적용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23] F. E. Gablein, *The Pattern of God's Truth: The integration of faith and leaning*, ACSI. 1968.

저자 소개

이란(Ran Lee)

정회원



- 1994년 : 고려대학교 국어교육학과(문학사)
  - 2003년 : Univ. of Edinburgh Faculty of Education. (Msc in Education, 교육학석사)
  - 2017년 : 총신대학교 기독교교육학과 기독교교육전공(문학석사)
  - 2017년 :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문학교육전공(철학박사)
  - 2018년 ~ 현재 : 서울신학대학교 CTL 글쓰기 지도교수
- <관심분야> : 독서와 글쓰기, 매체 언어교육, 미디어 리터러시